

김태훈 연구위원

◦ 매달 교육 관련 주요 뉴스 기사의 키워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최신 이슈를 소개합니다.

- ▶ 검색 및 분석 도구 : NetMiner ver.4.5 News Data Collector Program
- ▶ 검색어 : “교육”, “교육청”
- ▶ 검색 기간 : 2023년 12월 1일 ~ 12월 26일
- ▶ 분석 대상 : 주요 일간지 온라인 뉴스 기사 752건의 제목 및 본문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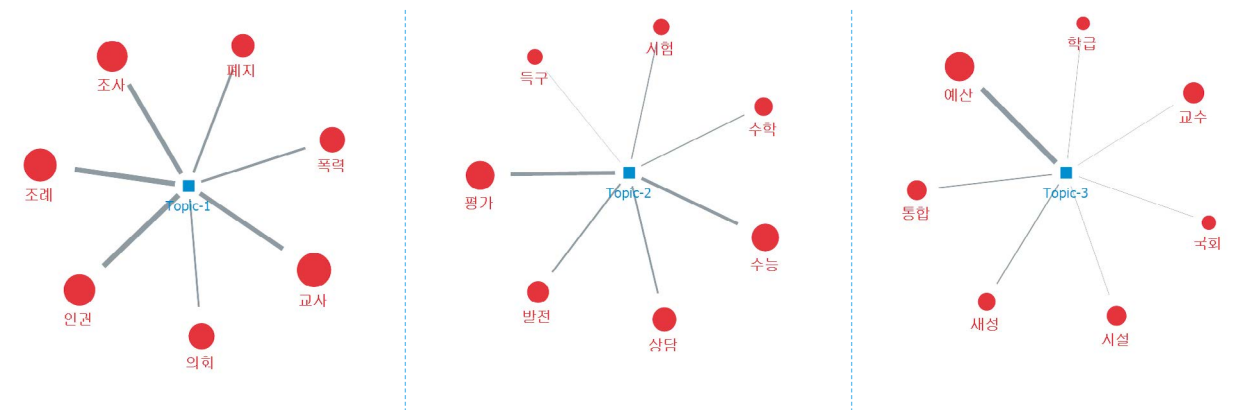


1. 워드 클라우드(Word Cloud) 상위 빈도수 300개의 키워드를 구름 모양으로 시각화  
(※ 제외어: '지역명', '성명' & 교육, 교육청, 학교, 교육부, 정책, 사업 등)



→ 이달의 교육 뉴스에서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‘학생’, ‘지원’, ‘교사’, ‘지역’, ‘조례’, ‘인권’, ‘조사’, ‘예산’ 등임.

## 2. 토픽모델링(Topic Modeling)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3개의 주제군(토픽)으로 분류하여 제시



## 토픽1

인권, 조례, 폐지, 교사,  
폭력, 의회, 조사

## 토픽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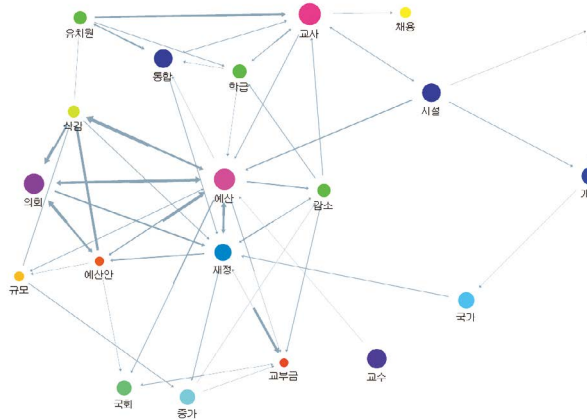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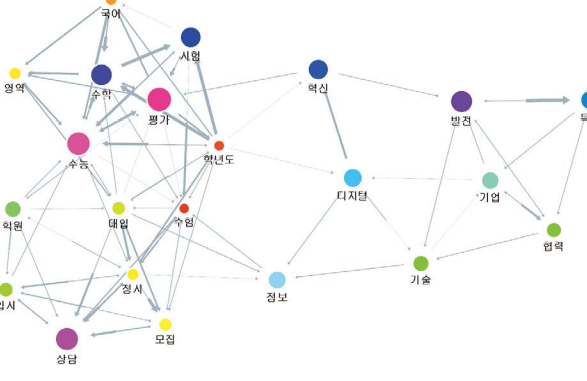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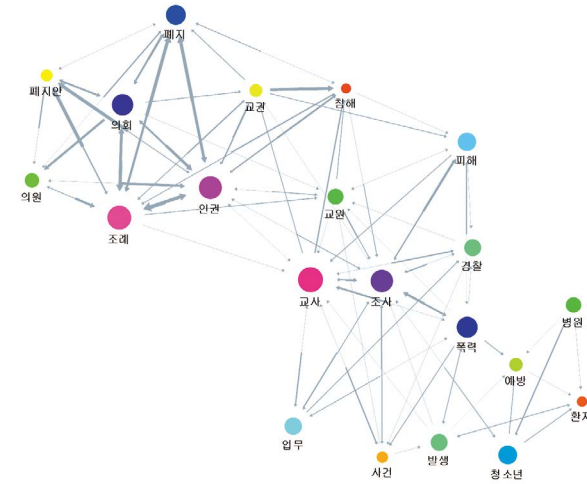
수능, 평가, 상담, 발전,  
수학, 시험, 특구

## 토픽3

예산, 교수, 시설, 통합,  
학급, 국회, 재정

### 3. 토픽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(Keyword Network Analysis)

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으면 큰 원으로, 서로 많이 연결되면 두꺼운 선으로 가깝게 표현



※ 12월의 국내 교육 관련 뉴스에서는 ‘6일,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 발표’ 및 ‘8일,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’의 영향으로 관련 뉴스가 많이 등장하였음. 또한 내년 예산안 관련하여 ‘유보 통합’, ‘특별교부금’ 관련 이슈들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됨.

◆ <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>은 전라북도미래교육연구원 홈페이지  
[교육정책연구-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]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## 토픽1

-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, 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,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련 이슈 등

예) “서울시의회,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내년으로”  
 “당정 ‘학폭 전담 조사관 도입하고 전담 기구 신설’”  
 “학폭 당했다, 10년 만에 최다, 신체폭력 늘어”

## 토픽2

- 교육발전특구 공모,  
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 관련 이슈 등

예) “교육발전특구 공모... 교육청-지자체 협력 관건”  
“수능 성적표 배부, 14일부터 진학 상담”

### 토픽3

- 유보통합 준비, 특별교부금 개정안 관련 이슈 등

예) “유보통합 법적 토대 마련...정부조직법 개정안  
국회 통과”  
“시도교육감협...유보 통합 재정·인력 대안 필요”  
“특별교육부금 개정안...지방자치 역행, 철저히해야”

#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



2024년 :  
01호 :

## ❓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?

박호용 전문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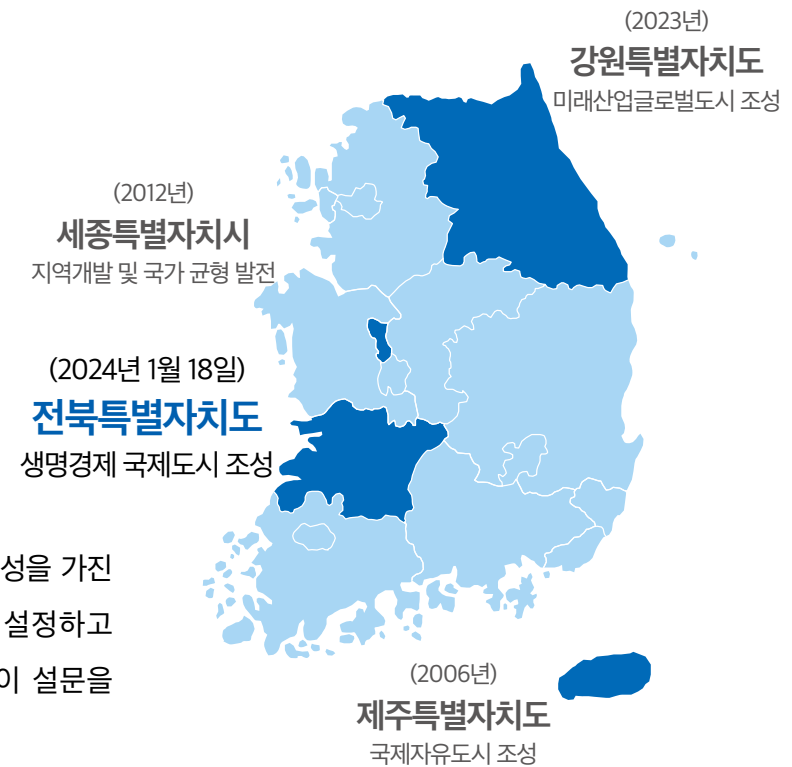
## ‘특별자치도’란

- ① 일반적인 도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된 지역으로,  
②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 결정과 권한 하에 도정을 운영하는 특별지역을 말함.

- + 지금까지 출범한 특별자치시·도는 제주(2006)·  
 세종(2012)·강원(2023)이며, 2024년 1월 18일  
 전라북도 역시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함.

- ❖ 전북특별자치도가 ‘생명경제 국제도시’ 조성을  
목표로 진행됨에 따라,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를  
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 
필요함.

- 먼저 특별자치시·도가 된, 제주·세종·강원과 차별성을 가진  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 
교육분야 특례를 발굴하기 위하여, 다음과 같이 설문문을  
실시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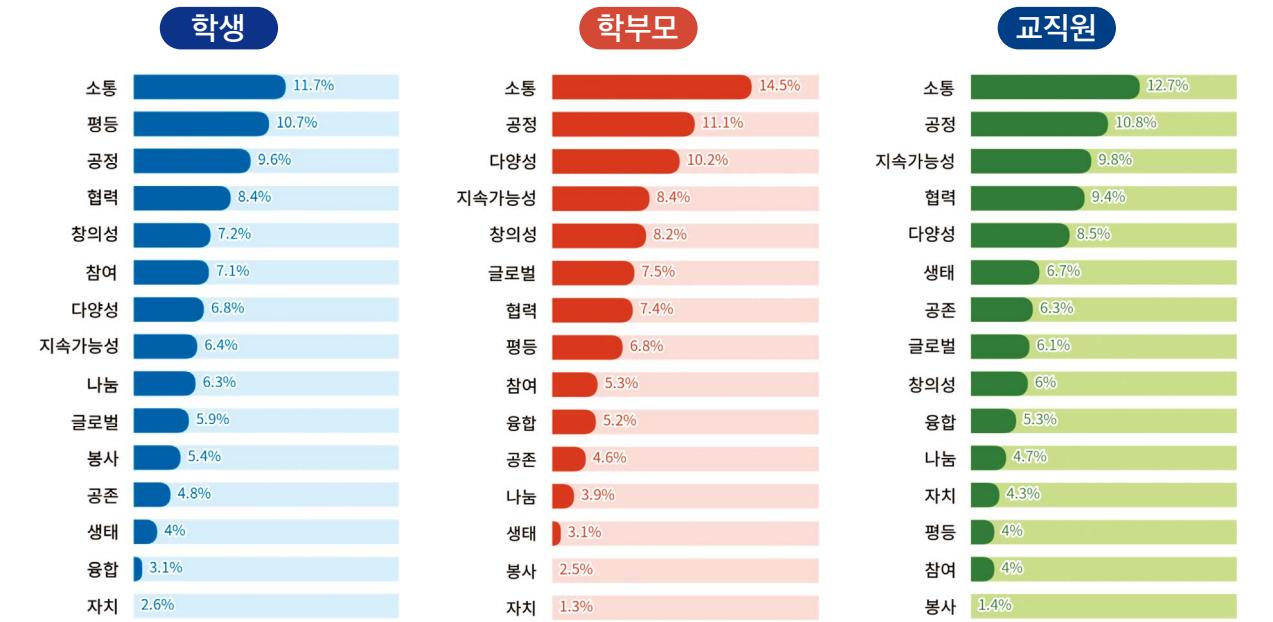


## 설문 개요

- ◎ (설문기간) 2023. 11. 13.(월) ~ 11. 23.(목) 11일간      ◎ (응답인원) 총 3,437명 (학생 451명, 학부모 1,833명, 교직원 1,153명)  
 ◎ (설문방법) 온라인(유레카 시스템) 조사      ◎ (설문문항) 총 9문항 (서술형 1문항 포함)  
 ◎ (설문대상) 도내 중·고 학생, 유·초·중·고·특수 학부모 및 교직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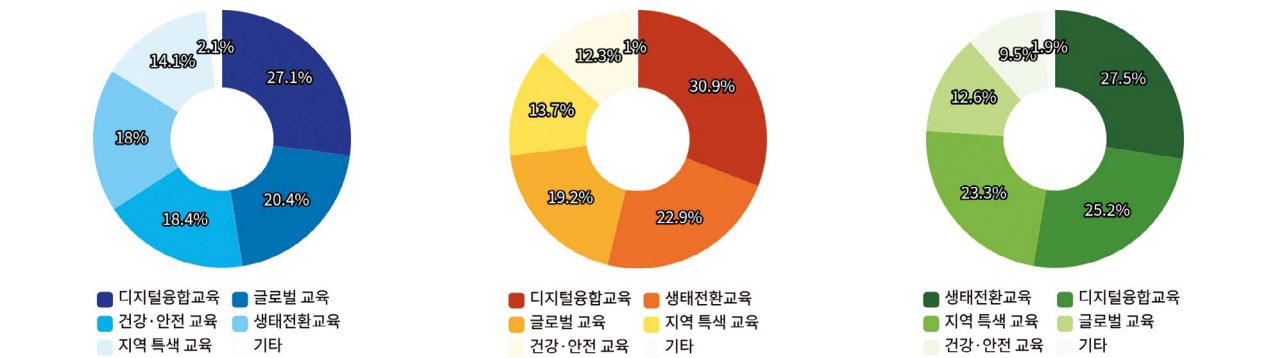
01.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 : 소통

- + 학생, 학부모, 교직원은 공통적으로 모두 '소통'을 가장 강조하였음.
  - 학생은 소통(11.7%), 평등(10.7%), 공정(9.6%), 협력(8.4%), 창의성(7.2%) 순으로,
  - 학부모는 소통(14.5%), 공정(11.1%), 다양성(10.2%), 지속가능성(8.4%), 창의성(8.2%) 순으로,
  - 교직원은 소통(12.7%), 공정(10.8%), 지속가능성(9.8%), 협력(9.4%), 다양성(8.5%) 순으로 강조하였음.



02.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분야 : 디지털융합교육·생태전환교육

- +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교육분야에 대하여,
  - 학생과 학부모의 공통 1순위는 '디지털융합교육(27.1%, 30.9%)'이었고,
  - 교직원은 '생태전환교육(27.5%)'를 1순위로 선택하였음.
- + 한편 교직원은 생태전환교육과 디지털융합교육 그리고 지역특색교육 모두 23~27%로 유사한 응답률을 보여, 교육분야라고 인식하고 있었음.



03. 각 교육분야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

- + '글로벌 교육'과 '전북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'은 1순위와 2순위의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의견이 일치하였음.
- + '생태전환교육'과 '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'은 의견이 일부 일치하였고,
- + '디지털융합교육'은 학생과 학부모·교직원 간의 의견이 서로 달랐음.
  - 학생은 '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강화'와 '교수·학습 시스템 구축'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반면,
  - 학부모와 교직원은 그보다 디지털기기를 활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문제를 예방하고,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음.

영역	학생	학부모	교직원
생태전환 교육	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27.6%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27.4% 생태시민교육 실시 21.7% 생명경제 관련 기업과 연계·협력활성화 21.4% 기타 1.9%	생태시민교육 실시 33%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23.4% 생명경제 관련 기업과 연계·협력활성화 22.5%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20.6% 기타 0.5%	생태시민교육 실시 36.6%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 양성 23.2% 생명경제 관련 기업과 연계·협력활성화 20.5%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19.2% 기타 0.4%
디지털융합 교육	교수·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33.1%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강화 27.3% 디지털 기반 교과 교육과정 개발 19.1% 디지털 윤리 문화,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18.5% 기타 2%	디지털 윤리 문화,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31.2% 디지털 기반 교과 교육과정 개발 29.8% 교수·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24.1%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강화 13.7% 기타 1.1%	디지털 윤리 문화,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30.9% 디지털 기반 교과 교육과정 개발 24.2% 교수·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24%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강화 19.8% 기타 1.1%
글로벌교육	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30.2% 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대 27.8% 국제학교 설립 24.8%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16.1% 기타 1.1%	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대 38%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33.7% 국제학교 설립 15.4%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11.7% 기타 1.2%	외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확대 38.4%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28.8% 글로벌 이민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마련 21.8% 국제학교 설립 9.7% 기타 1.2%
전북 지역 특색 반영 교육	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 32.4%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 28.5% 도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20.1%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17.3% 기타 1.9%	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 31.6%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 26.4%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21.5% 도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19.7% 기타 0.8%	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 32.1%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 30%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20.4% 도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16.8% 기타 0.7%
건강과 안전 관련 교육	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 32.4%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·지원 28.5% 학교체육 활성화 20.1%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 17.3%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8.1% 기타 0.7%	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·지원 27.4% 깨끗하고 안전한학교급식 제공 26.2% 학교체육 활성화 22.1%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 13.4%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10.1% 기타 0.8%	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 구축·지원 28.5% 학교상담활동 지원 강화 22.3% 학교체육 활성화 21.6% 깨끗하고 안전한학교급식 제공 16.7%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내실화 8.6% 기타 2.2%

04.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

- +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,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모두
  - ① '도내 직업계고 졸업(예정)자를 관련 분야에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',
  - ② '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·진한 교육 내실화' 순으로 응답하였음.